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성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도 똑같이 말할 거야!” 하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놀림을 받으면 억울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에게도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많이 아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아주 나쁜 말을 하며 저주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계속 괴롭혔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왕이시여! 저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혼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어요. 다윗도 화가 났을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시므이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든 마음과 억울한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한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소리치거나 똑같이 나쁜 말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화가 나요.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도 함께하시고, 화가 날 때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말걸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예예예! 다 같이

말씀봉독 사무엘하 16:1~14절 다 같이

설 교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맡겨요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예예예!!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피주셔서 감사해요.

다윗처럼 속상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 주세요.

나쁜 말에 나쁜 말로 갚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시므이가 나쁜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똑같이 갚았나요?

2.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요?